


외국 NGO/ NPO 활동사례 1

공익재단법인 리버프론트연구소

財団法人  Foundation
for Riverfront Improvement and Restoration

관련기관
코너
2
River & Culture



오민근 | Regional & Urban
Creative Consultant /
CRC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지문위원
(ufo1009@hanmail.net)

이번 호부터, 하천의 정비와 보전 등과 관련하여 외국의 NGO 및 NPO의 활동사례를 신고자 한다. 하천정비 및 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두드러지는 사례가 미흡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하천 관련 NGO 및 NPO가 더 늘어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1. 단체의 개요

리버프론트연구소는 1987년에 발족한 (재)리버프론트정비센터를 모체로 하여 일본만이 아니라 지구규모의 환경보전과 정비를 위해 공익성이 높은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 4월에 새로이 '공익재단법인 리버프론트연구소'로 재출발하였다.

한편, 미래의 저탄소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유역수순환 관리



<http://www.rfc.or.jp>

수법, 유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정비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수법, 안전하고 윤택함이 있는 국토의 실현을 위한 수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을 행하고 있다.

또한, 리버프론트연구소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행정 및 학식경험자, 민간기업, NPO 등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으며, 다양한 매뉴얼 및 요강 등을 책정하고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축적된 최신 기술정보를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

2. 연구 주제

리버프론트연구소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지구자연환경 악화 등 지속가능한 활력이 있는 유역사회형성을 향해, 세계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과제가 되고 있는 물과 수변에 관한 다양한 과제에 대하여, 미해명, 미개발된 기술을 첨단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 및 개발하여 앞으로 사회의 수요에 답하고, 사회제도 및 기술을 제안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물과 수변에 관하여 환경 및 생태계의 기본적인 과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4가지 임무에 대처하고 있다.

- 물과 수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본적 과제에 관한 연구
- 저탄소사회의 형성을 향한 표류수 및 지하수 일체가 건전한 수순환형성에 관한 연구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유역 및 마을 만들기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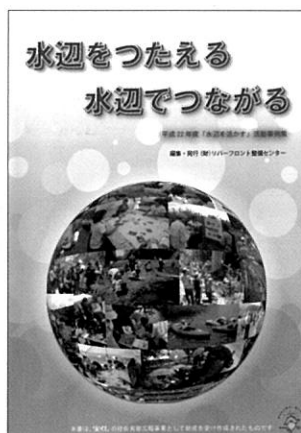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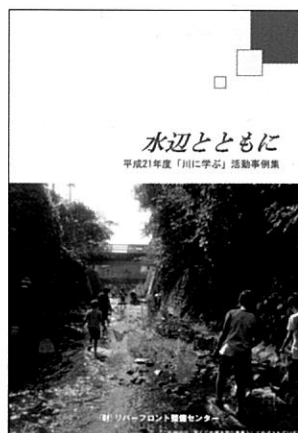
- 생태계 서비스를 향수하는 유역사회구축에 관한 연구
- 의식공유, 합의형성을 지원하는 '가시화(可視化)'에 관한 연구

3. 활동성과

리버프론트연구소는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비롯하여 기관지 River Front와 같은 잡지 및 서적 등의 간행물, 개최 행사, 기타 조성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조성사업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행하고 있는데, '수변 시설' 조성사업의 경우는 (재)일본복권협회의 조성을 받아 일반 사람들이 수변공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연관찰시설, 비오톱(biotop) 시설 등의 수변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기증하는 것이다.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조성실적은 42건에 이른다.

또 다른 조성사업은 '하천에서 배우는' 및 '수변을 활용하는' 활동조성사업으로, 하천 및 해안 등의 수변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수변에 대한 친근한 느낌을 촉진 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하천 및 해안 등의 수변에서 행하는 활동인 하천마을만들기 등의 활동에 대해서 조성을 행하는 것이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건의 조성실적이 있다. 🌍



2009년 및 2010년도 활동조성사업 결과보고서 표지